

삼표가 GREEN 세상

계간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비매품.

삼표가 GREEN 세상

2020 Summer & Autumn
Vol. **67**
JUL • AUG • SEP • OCT • NOV



QUARTERLY
SAMPYO
MEMBERSHIP
MAGAZINE

SAMPYO

☎삼표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 02-460-7111

Theme Prism | 새 시대 뉴노멀을 이야기하다 **Hot Issue** | 이슈 분석 UHPC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삼표그룹

삼표 | 사내 제도 바로 알기 혁신하는 기업문화 - 자율복장제 · 즐거운 회식문화



새로운의 기초가 된다

새 시대, 새 가치의 이름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개인의 일상과 사회에 나타난 변화는 어느덧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뉴노멀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잠재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모든 것이 급변하는 혼돈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기존의 경제 질서를 붕괴시키고 전혀 다른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의 기초가 될' 삼표의 미래, 기대해보아도 좋은 이유다.

©Getty Images

CONTENTS



04 Theme Prism ① 뉴노멀을 이야기하다	30 Hot Issue ① 삼표그룹, UHPC 기술 개발에 앞장서다
08 Theme Prism ② 뉴노멀 시대, 기업의 과제	34 Hot Issue ② (주)코스처 탄생의 주역, 수급전략팀
14 Case Study 역동하는 건축, 새로운 탄생	36 Photo Event 당신의 패션을 뽐내주세요
18 Talk & Talk 배국환 삼표그룹 부회장 인터뷰	38 인론에 비친 삼표 ① 각종 산업 부산물을 건설기초소재로 활용하며 친환경 경영
22 삼표+ 혁신하는 기업문화 지율복장제·즐거운 화식문화	40 인론에 비친 삼표 ②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R&D 독심 투자
26 Spotlight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조직문화팀	42 SP News
	46 삼표인 소식
	47 Quiz & Notice

삼표가 GREEN 세상

Quarterly Sampyo
Membership Magazine
2020 Vol. 67

계간 삼표그룹 매거진
2020년 하반기 통합호, 통권 67호
2020년 10월 22일 발행
www.sampyo.co.kr

발행인
박장원

편집인
김용민

기획·진행
(주)삼표 홍보팀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02-6270-0752

제작

(주)가미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02-317-4921

NOT FOR SALE

분기별로 발행되는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비매품.

<삼표가 GREEN 세상>에 실린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Copyright©Sampyo All rights reserved.

뉴노멀을 이야기하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전의 삶을 다시 꿈꿀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사실은 세계를,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뉴노멀의 이름으로 말이다.

코로나 시대의 지화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적 대유행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이동의 감소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감염병이 유행하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왕래를 막았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스케일에 차이가 있다. 하늘을 뚫뚫하게 채우던 비행기들이 운항을 대폭 줄였고 공항은 텅텅 비었다. 또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도시의 러시아워도 이전 같지가 않다. 즉 거리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이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20세기 말부터 경제 시장을 주도하며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묶었던 신자유주의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국가나 지역 단위로 경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국경을 넘어 세계를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묶었다. 선진국들은 자본과 기술을 갖고 제3세계를 제조공장과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었고 선진국으로 부의 집중이 가속화됐다. 그러던 차에 중국을 필두로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신자유주의 경

제 시스템은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

뉴노멀의 탄생

뉴노멀(New Normal)은 미국의 벤처 투자가 로저 맥나마(McNamee)가 사용한 단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예전에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일들이 점차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사회에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뉴노멀'은 다시금 시대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노멀 2.0 시대에는 무엇이 변할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사회를 바꿀까? 그 답은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즉 세계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나눌 만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H.O.M.E'이라는 말로 요약하기도 한다.



H.O.M.E.이 바뀐 사회

첫째 H는 Healthcare, 즉 공중보건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실감하지 못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코로나19 검사비로만 수십만 원, 그리고 치료비로 수천만 원 이상이 청구되는 개인적 부담을 안았다. 국가 입장에서도 사회의 보건 안전 수준이 사회적 안전은 물론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겪었다. 그 결과 많은 나라가 효율적으로 국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광범위한 질병 전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공중보건 시스템이나 나라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 방법이 원격 진료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국민 의료 데이터의 축적 등 장점이 많다.

1 원격 진료 시스템의 구축은 질병 전파의 효과적 대응뿐 아니라 향후 공중보건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2 가벼운 이동성을 가진 도시형 모빌리티 솔루션의 개발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3 라이드 셰어링과 같은 개인형 대중교통 수단도 주목받고 있다. 4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수업의 일상화는 코로나 시대에 맞이한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다.

둘째 O는 Online, 즉 인터넷과 통신 등을 통한 온라인을 뜻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자상거래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던 이들조차 어쩔 수 없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은 쉬워지는 법이다. 여기에 IT기기를 낫설어하던 노년층에게는 굳이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로도 주문을 받는 서비스가 늘어나 대응의 폭을 넓혔다. 재난지원금이 오프라인 시장을 활성화해 균형을 맞추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가 주도할 것이 분명하다.

셋째 M은 Manless, 즉 무인 혹은 비대면이다. 비대면 택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꺼려 택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던 이들에게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익숙해진 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가는 비대면 택배 서비스가 오히려 안도감으로 작용했다. 즉 이동 제한의 불편

함이 온라인 서비스의 편리함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면서 더 편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E는 Economy at home, 즉 재택 경제 생활이다. 재택근무와 전자상거래는 수입과 지출 행위가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원격 진료까지 제공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뉴노멀이 가져올 모빌리티 변화

사회가 H.O.M.E.를 지향하게 된다면 모빌리티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확실한 것은 모빌리티의 형태가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다양한 산업군 중에서도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예측하고 준비하던 미래차와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5 감염병 예방은 인류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6, 7 코로나19의 여파로 록다운(Lockdown·이동 통제)된 이탈리아의 거리 풍경. 8 코로나19로 세계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변화를 겪고 있다.

아마도 가장 큰 타격은 전통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받을 것이다. 감염병 전파의 최고 조건이 좁은 공간, 가까운 거리, 장시간 반복 접촉인데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수단이 정확히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이드 셰어링, 카 셰어링 등 개인형 공유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으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동 효율성이 높은 초소형 개인 교통수단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판매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는 이런 이유도 일조했다. 다양한 도시형 모빌리티 솔루션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택배 서비스의 증가 역시 모바일 플랫폼의 개발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 배달이 확대되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무인 플랫폼의 상용화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인 셈이다. 9

클릭 편집실 사진 세터스톡

뉴노멀 시대, 기업의 과제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된다. 뉴노멀 시대, 기업의 과제는 무엇인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선 기업의 면면을 살펴본다.



사람 중심 기업이 정신을 주제로 설립된 재능기부형 학교인 한국 꿈파니아 학교가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프랑스 기업가정신연구소 등과 진행한 연구 조사 GNN(Global New Normal)이 있다. 3월 18일 시작된 조사의 1차 자료 분석 결과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 진단됐고, 이 중 일부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보여줬다. 언택트 이코노미의 가속화, 디지털 라이프의 확대, 재택근무의 확산, 착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이 그것이다.

비대면 시대, 소비의 변화

뉴노멀을 앞세운 변화는 소비에서부터 시작해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한다. 많은 소비자가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들고 있다. HMR(가정식 대체식품), 배달 음식과 개인화 영상 플랫폼, 화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기술(IT)·전자 산업 등이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당연히 기업의 생존 방식도 소비 변화에 맞춰 이뤄지기 마련이다. 현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기업의 성공이 달려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HMR 등의 제품을 선보이는 식품기업의 역량이 주목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의 서비스와 제품도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HMR 제품부터 신선한 샐러드와 샌드위치까지 식사용 제품 라인업을 더 강화하고, 자체 배달 서비스인 '파바 딜리버리'를 도입하는 등 코로나19로 변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파스타와 리소토군을 비롯해 집에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HMR 제품군을 늘리고, 건강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샐러드 제품군도 확대했다.

1 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서비스의 수요는 무려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파리바게뜨는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HMR 제품군을 속속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 라이프를 공략하다

식품 외에 주목되는 것은 콘텐츠 시장이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IPTV업계 1~3위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모바일·IPTV·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늘고, 실내 활동 증가에 따른 언택트 사업의 성장이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통신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와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반기 중 5G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와 AR(증강현실) 및 VR(가상현실)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전자제품 시장 역시 디지털 라이프에 맞는 제품 출시를 가속화한다. LG전자는 빅데이터가 연계된 인공지능을 더한 스마트 가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레스토랑 운영 및 관리 로봇 솔루션 서비스인 'LG 클로이 다이닝 솔루션'을 공개하며 인력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의료관리기나 의료건조기, 공기

청정기 등 위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디지털 위생 가전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재택근무 효율성 입증되며 업무 스타일 변화 모색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재택근무, 유연 출퇴근제 등이 확대되면서 업무 방식 자체가 바뀌는 모습이다. 재택근무는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꿔간다는 데서 뉴노멀 시대의 적극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62.3%가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대기업 직장인 중에는 73.2%가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디지털재단은 6월 17일 '스마트 워크 정책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코로나19로 널리 퍼지게 된 재택근무 경험이 원격근무의 뉴노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표그룹 역시 올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행하며 업무 효율성과 높은 직원 만족도를 경험한 만큼 향후 사회 변화에



1, 2 비대면에 최적화된 레스토랑 운영 및 관리 로봇 솔루션 서비스 'LG 클로이 다이닝 솔루션'.
3, 4 화상회의와 OTT 서비스는 디지털 라이프의 가속화를 가져오고 있다. 5 코로나19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경영 가치도 재조명하게 했다.

리적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데 조사 참여자의 60.1%가 동의했다. 코로나19로 강조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기업들은 적극적인 기부와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

위기 관리 잘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

코로나19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제를 남겼다. 위기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곧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평소와는 다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하느냐 조치하지 못하느냐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위험 상태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여러 대안을 분석해 문제를 해결하면 위험은 사라진다. 하지만 위험 상태를 방치하면 이는 곧 큰 위기가 되어 심한 경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기업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징후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사전 대응에 나서야만 한다. 우리에게 코로나19는 분명한 돌발 상황이지만, 이를 발판으로 위기 관리 역량을 키우고 기업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성장해간다면 오히려 미래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곧 경쟁력

코로나19는 사회적 가치도 재조명하게 했다. 올 1분기 코로나19로 펀드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했음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 지표로 한 펀드에는 투자가 이어졌다. 소위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방역이나 고용안정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착한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윤

INTERVIEW 환경안전팀

“기업의 위기 관리는 안전에서부터”

삼표그룹의 위기 관리는 안전에서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안전 관리와 재해 대응에 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때, 환경안전팀 선우영진 차장에게 기업과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환경안전팀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환경안전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의 불안전 상태 및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장 안전 점검',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발생 형태 등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 중장비 운행 안전관리·양중기 취급 안전관리·LOTOTO(LOCKOUT / TAGOUT /

TRYOUT) 시스템 운영·아침TBM(Tool Box Meeting) 운영·안전순찰 당번제도 등 안전 활동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부 안전 활동 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회의를 매월 실시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가장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 시기에는

사업장 방문을 자제했고, 사업장 안전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및 사업장의 최소 인원만 접촉하는 방식으로 안전 지원을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불안정한 요소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조직원이 자율적으로 안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환경안전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환경안전팀 차원에서

어떤 근무 지침을 내리고 있는지, 또 사우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업장과 본사의 대응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방역지침을 수립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의심자에 대해서는 상황 종료 시까지 모니터링 관리 등을 환경안전팀에 실시하고 있고요, 사업장 또는 본사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환경안전팀에 즉시 보고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간혹 상황 종료 후 환경안전팀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N차 감염 등의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 의심자 발생 즉시 환경안전팀에 통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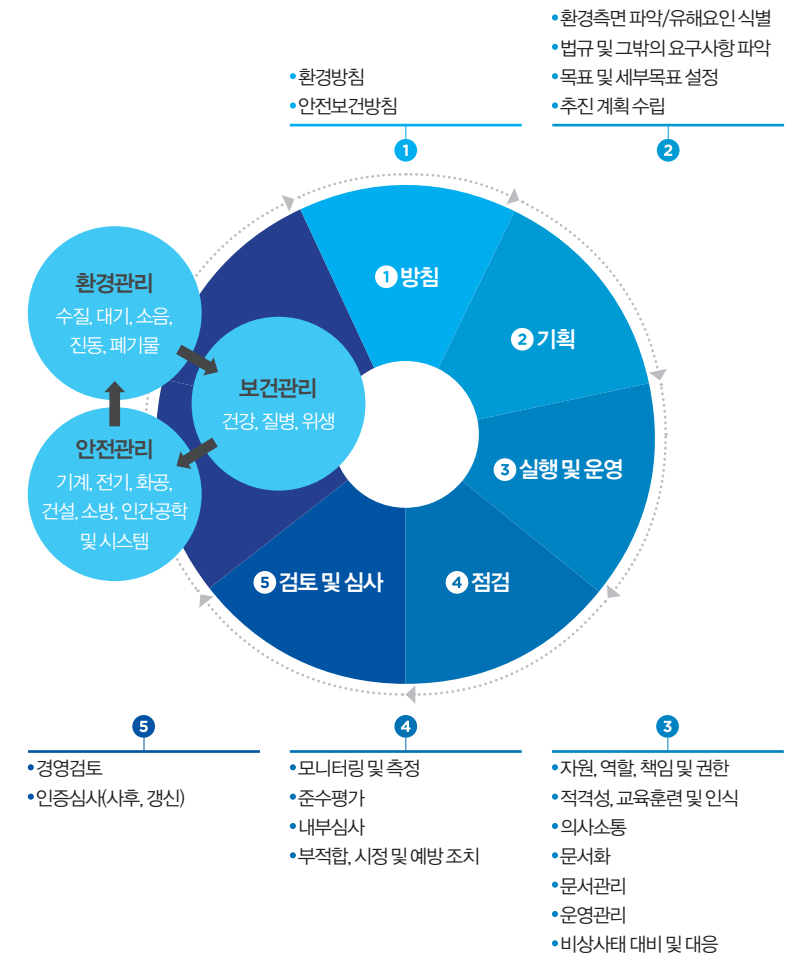
안전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직원 및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OTOTO 시스템을 사업장에 적용했는데 관리자만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행위 주체자인 근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검,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 대응에 관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그만큼 환경안전팀의 역할도 절실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럼 내 모든 팀이 위기 대응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철저히 서포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룹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시스

삼표그룹의 환경안전경영 시스템



템을 탄탄하게 구축해나가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팀 내부적으로 실행 중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저희 팀에서는 전사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자 여러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월을 그룹 안

전의 달로 정해 'Safety Golden Rules(13대 안전수칙)'을 공표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달 선포식, 위험성평가 재실시, 5S 활동 등 주간 테마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원인 분석, 안전제안 개선 활동, 안전관찰 개선 요청 등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최적의 작업 환경과 시설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역동하는 건축, 새로운 탄생

코로나19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주거 환경과 공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축 분야에도 변환점이 필요한 시기.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의 새로운 정의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고층 건물의 의미 상실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을 추구하며 많은 기업 및 교육기관이 공여정책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도입했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조금씩 적응해나가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재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가운데 한국의 훌륭한 인터넷 환경이 연착륙에 공헌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처럼 공여정책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건축의 물리적인 의미가 바꿨다. 근무 태도 및 기강 등의 관리를 위해 직원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그렇다고 재택근무가 기업 입장에서 나쁜 것만도 아니다. 직원의 물리적인 존재를 확보하고자 기업은 지금껏 사무 공간에 할애했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비싸고 업무 공간만으로 일터를 꾸릴 수 없다. 순수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실부터 화장실이나 탕비실, 심지어는 주차장을 비롯한 부대 공간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재택근무가 가능했다면? 본의 아니게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 일터의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직원 수 대비 사무 공간을 적게 계획할 명분이 생겼다는 의미다.

사무 공간 확보의 명분이 줄어들면 오피스, 특히 대규모 고층 건물의 의미가 바뀐다. 지금껏 기업이 고정 지출이라 여겨온 부동산 비용이 일부, 혹은 전부 절감 가능함을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무 공간의 확보가 의미를 잃으면 수요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적인 오피스 빌딩의 소유 및 임대에 대한 수요는 물론, 사무 공간 전체를 임대하여 강화된 부대 시설 및 서비스와 함께 책임대하는 공유 오피스 사업 또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가상 공간의 영향력 증가

실제 및 가상 공간의 영향력은 반비례 관계로 맞물린다. 재택근무 등으로 감소한 실제 공간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가상 공간이 가져간다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완벽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시행한 재택근무 혹은 학습 등이 연착륙한 데는 인터넷의 공이 크다. 1990년대에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던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안정되며 편리한 가상 공간이 구축되었고, 코로나19 시국에서 덕을 보고 있다. 줌(Zoom) 등의 웹 화상회의 서비스가 폭발적인 수요를 누리며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화가 높은 비율로 이루어진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통화 등도 준 강제 비대면 시대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들 가상 공간이 단 순히 업무용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최근 추석 특집으로 방영된 '나혼아 스페셜'에서는 서울부터 제주는 물론, 짐바브웨 등 타향의 동포까지 1,000가구가 비대면으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시국이 아니었다면, 실현 가능하더라도 가능성조차 타진해보지 않았을 가상 공간이다.

←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건축정의를 꼽으라고 한다면, 실시간용도 전환 및 대처가 가능한 모듈러 방식의 건축 활성화와 가상 공간의 영향력 증가를 들 수 있다.



- ↑ '핑거 플랜' 방식의 녹지공간을 구현해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한 독일 슈투트가르트(위)와 서울 청계천(아래)의 모습.
- ← 이탈리아의 팔마노바는 중세에 흑사병을 겪은 유럽이 건설한 일종의 계획도시다. 도시 전문가들은 이 도시가 감염병으로부터 수호할 목적으로도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목은 공공 시설의 새로운 재발견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인 공간뿐 아니라 사회의 공공시설과 도시 환경에서도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식물화로' 소규모 생활권의 자족성이 강화되고, 사람들에게 '동네'가 보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도시 스케일에서도 기초생활권 강화를 위해 물류 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해졌고,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건축물의 가변적 가능성이다. 건물이 시대나 용도에 따라 빠르게 그 특성을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건축' 말이다. 최근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같이 유휴 공간이 되었거나 성격을 잃은 건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감염병이나 재해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건축의 방향성은 물리적 필요의 반영에 그치지 않는다. 역설적이지만 초개인화가 촉진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뉴노멀 시대 건축의 소명 아닐까.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건축의 지속적인 가치를 확고히 할 때 '건강한 도시와 공간'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핑거 플랜' 방식의 녹지공간 활성화

주거 공간이나 업무 시설과 인접한 오픈스페이스의 조성은 뉴노멀 시대에 중요한 화두다. 물론 통풍이 잘되는 공간을 도시 곳곳에

마련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언택트 시대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를 손으로 봤을 때, 손가락에 각종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사이사이에 녹지를 계획하는 방식인 이른바 '핑거 플랜(Finger Plan)'이 점점 더 그 영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이런 녹지계획은 도시 전체에 바람길을 도입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는 바람길을 활용하여 과거의 공업도시이자 최악의 오염도시를 현재의 친환경 도시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집 안 내부의 오픈스페이스 확보는 통풍을 통해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초개인화로 인해 발생하

는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헬스 케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의료복합 건물에 대한 수요도 커질 공산이 크다.

인테리어 수요의 증가

적어도 내년, 즉 2021년까지는 기다려야 코로나19 이전 시대처럼 자유롭고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대한 빠르게 잡았을 때 그렇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변화 없는 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출퇴근을 비롯한 각종 외출로 공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집이 더 소중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이 허락을 못 해 집에만 머물다 보니 지겨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인테리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작은 소품부터 액자, 러그, 조명 등의 교체로 통한 변화 주기도 주목받지만, 한정된 공간 자체의 변화를 고려하는 인테리어 방법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생활의 확보 및 비대면의 강화 등을 위해 열린 공간에 바퀴 달린 파티션 등을 설치해 공간의 열림과 닫힘을 쉽게 조절하는 시도가 대표적인 예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을 자주 바꾸기 위해서는 캔버스에 해당하는 공간 자체가 최대한 비어 있어야 한다. 웬만한 것은 모두 버리고 살라는 미니멀리즘처럼 '극단적인 비움'이 아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 비움'이 필요한 시대다.

뉴노멀이 가속화한 친환경 건설

중국 우한이나 뉴욕 맨해튼에서처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순식간에 의료 체계가 붕괴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의료진이나 의

료 기기도 문제지만 격리 수용 공간이 부족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에는 대규모 구조물의 빠르고 편리한 설치와 해체에 초점을 맞춘 임시 구조물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대형 군용 천막처럼 구조체와 섬유 등을 활용한 막 구조가 임시 구조물의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뉴노멀은 단순히 공간 조성이나 건축 형태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일으켰고 이는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건축 자재 시장의 친환경 움직임들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친환경 자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건설업의 시공, 시행, 설계, 유지·관리 분야의 재편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설 정책 또한 새로운 기준(New Normal) 설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삼표그룹 역시 각종 산업 부산물을 건설기초소재로 자원화해 일찌감치 재활용과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으로부터 레미콘 제품 3개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이석홍 삼표그룹 연구개발혁신센터 부사장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녹색건축 인증이 증가하면서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레미콘 제품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춘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친환경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품 인증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한바 있다.

혁신이 아닌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 건축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기술의 접목과 품질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은 뉴노멀 시대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 [9]



- 기 빠르고 편리한 설치와 해체에 초점을 맞춘 임시 구조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 스웨덴 에테보리항에 설치된 컨테이너 구조물.



누구나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 당부
**“삼표인 자긍심 느끼는
 문화 만들어야”**

“임직원 여러분께서 '삼표인'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는 '삼표만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배국환 삼표그룹 부회장이 그룹 사보를 통해 임직원이 '삼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회장이 말하는 삼표만의 문화는 어떤 것일까.
 인터뷰를 통해 직접 들어봤다.

삼표그룹에 합류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지난 4월 삼표그룹에 합류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야 인사를 건넵니다. 먼저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삼표에서 근무하며 임직원분들의 탁월한 업무·소통 능력 등 놀란 점이 많았지만 그중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회장님의 경영철학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평소 삼표가 그동안 잘해왔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강조하십니다. 국내 건설기초소재 1등 기업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장님의 경영철학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의 삶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논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기소 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입니다. 이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죠.

당연히 옳다고 생각되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때 본질을 이해할 수 있죠.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의 조직 운영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공직은 공익, 민간은 사익을 각각 추구하고 있지만 최근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30년가량 공직에 몸담으면서 재정·혁신·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관련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우리 그룹이 추구하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임직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삼표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뉴욕 시민은 뉴욕커, 프랑스 파리 시민은 파리자영이라는 단어로 불립니다. 이 단어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자부심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삼표인'의 자부심을 높이는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조직의 문화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삼표라는 기업이 누구나 와서 경험하고 배우고 싶은 곳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새로운 홍보 영상의 아이디어를 직접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상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좋아서 뿌듯합니다. 저는 시멘트산업을 '초원의 청소부'인 쇠똥구리에 빗대 표현해보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취임 후 얼마 안 됐을 때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 가게 됐습니다. 견학 중 공장 한편에 페트병 등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웬 생활폐기물인가 했는데, 소성로(킬른)에 연료로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킬른 온도가 2,000도가 넘기 때문에 공해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시멘트 소성로를 활용해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을 들었을 때 불현듯 쇠똥구리가 떠올랐습니다. 쇠똥구리가 초원을 청소하듯이 인간사회의 쓰레기문제는 시멘트산업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시멘트산업의 친환경적인 모습을 쉽게 소개하고 싶었고, 이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 그룹이 나아가야 할 자서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언컨택트(Uncontact·비대면)의 일상화입니다. 대면하고 일하고, 소비했던 문화가 삼시간에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이 뉴노멀이 된 거죠. 저는 인간들 때문에 감염병이 퍼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이 큰 원인이지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도 탄소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그린뉴딜 정책 등을 적극 펼치고 있고요. 삼표그룹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갔으면 합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해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회사를 선택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한때 누구나 입사하고 싶었던 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듯이요. 그래서 회사를 선택할 때 연봉, 기업 규모 등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문화가 있나'로 판단했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이 객체로 머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체가 돼 업무를 능동적으로 끌어갔으면 합니다.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능력을 키워 가길 바랍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 능력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삼표그룹에 온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 건설기초소재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회장님은 '디테일에 강하신' 분입니다. 남다른 열정과 강한 자신감으로 업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디테일과 열정을 배워 삼표그룹이 건설기초소재 분야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주시다면 빠른 시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삼표그룹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삼표그룹의 경영 혁신은 지금부터, 박장원·김옥진 사장 선임



삼표그룹의 전략·마케팅, IT, R&D 혁신, 생산·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휘해 지속 성장을 위한 비전을 재정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CSO) 박장원 사장



제가 경험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해 재무 역량 강화와 경영 혁신은 물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경영지원실장(CFO) 김옥진 사장



혁신하는 기업문화 삼표그룹의 의미 있는 걸음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직의 정체성과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는 삼표그룹의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해보자.

기업이 바뀌고 있다. 어두운 정장 대신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출근하는 ‘자율복장제’, 문화생활·점심 회식 등 늘 없는 회식이 대표적인 기업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보수적인 이미지가 다소 강했던 건설기초소재업계도 이러한 기업문화 조성에 나서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조직문화 혁신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무 효율 높이는 자율복장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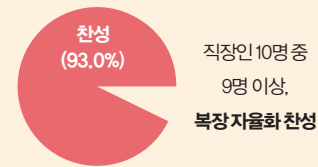
최근 기업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자율복장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삼표그룹도 업계

최초로 도입,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복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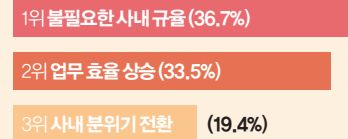
삼표그룹은 본사를 비롯해 전국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장 자율화를 전면 도입했다. 기존 정장 차림의 근무 복장 규정을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등이 허용될 정도로 완화한 것이다. 영업 등 외부 고객, 파트너사를 상대하는 직무의 경우에 한해 재킷이 있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도 거쳤다. 당시 사내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임직원의 참여도도 높아 자율복장제에 대한 성공적 안착을 기대케 했다. HR본부와 생산혁신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삼표 패셔니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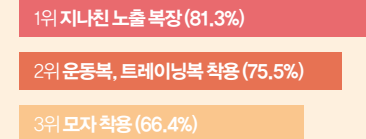
복장 자율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복장 자율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직장인이 반대하는 일상 패션은?



조사 대상 직장인 856명 조사 기간 2020년 7월 6일~12일(7일간) (인크루트 설문조사)

를 찾는 이벤트를 실시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다.

그간 ‘격식을 갖춘 직장인’ 정장 차림 문화를 고수해오면서 다소 보수적인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삼표그룹이 업계 최초로 복장을 자율화하기로 한 데는 복장 규정이 조직 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들고,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7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856명을 대상으로 ‘복장 자율화’를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3%가 ‘찬성’을 선택했다. 10명 중 9명은 자유롭게 편안한 복장 착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찬성의 이유로는 ‘불필요한 사내 규율이나 관습을 없앨 필요가 있어서’(36.7%)를 꼽았

다. 그리고 ‘업무 효율 상승’(33.5%), ‘사내 분위기 전환’(19.4%)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61.8%는 복장 자율화가 향후 이직 등 회사 선택 및 입사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향후 기업의 복장 자율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복장 자율화 시행 이후 삼표그룹 내에서도 유연한 조직문화가 구축되어가고 있는 데다, 직원들도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불편한 정장과 구두 대신 운동화와 청바지를 입는 것만으로도 사무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은 “다양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자율 복장이 허용되면서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다”고 전했다.



자율적인 회식문화를
지향하는 캠페인 덕분에 건강한 회식문화도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회식문화



건강한 조직문화의 첫걸음, 즐거운 회식문화

삼표그룹의 혁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율 복장제 도입과 함께 회식문화 개선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R본부 주관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즐거운 회식문화 만들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건전하고, 즐겁고, 자율적인 회식문화를 지향하는 캠페인 덕분에 건강한 회식문화도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물론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대표적인 건강한 회식문화로는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을 비롯해 퇴근 후 개인 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 회식, 볼링 등 스포츠를 즐기는 레저 회식 등이 있다. 또 삼표그룹은 회식에서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도 유대감은 높이고, 부담감은 낮추기 위한 '112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개인 시간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회식이 있을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직원들에게 날짜를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회식을 '차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집이 먼 직원, 컨디션이 안 좋은 직원 등 각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2시간 이내로 회식을 끝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즐거운 회사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조직문화팀 징검다리 역할 '톡톡'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방향 설정을 잘해도 결국 사람과 문화가 기업을 바꾼다. 이른바 '기업 문화의 큐레이션'이 중요한 시대다. 조직문화팀의 탄생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

먼저 하고 계신 일과 주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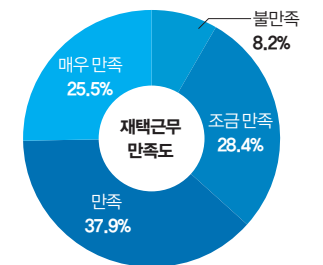
김철수 과장(이하 김철수) 복리후생 규정 및 제도 운영,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HR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총무팀을 조직문화팀으로 개칭하면서 회사 내 살림꾼은 물론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애 대리(이하 민경애) 조직문화팀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아직은 업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정신이 없지만 매우 재미있게 배우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원들의 이야기를 항상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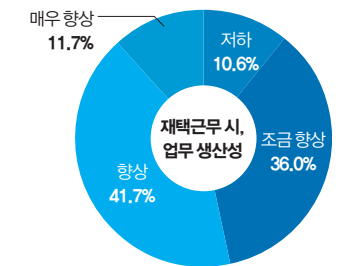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철수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본사 근무자를 중심으로 교대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교대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이나 운영 가이드가 완벽히 갖춰지기 전 긴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만족스러운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시행하면서 미흡했던 운영 사항을 팀별로 보완하는 등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도 시행은 향후 일하는 업무 방식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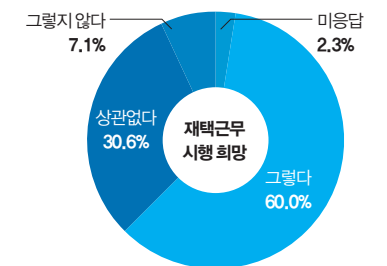
재택근무제 설문조사



91.8% 재택근무 만족



89.4% 업무 생산성 만족



60% 향후 재택근무 희망

본사 응답자수/대상자수 340명/513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민경애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 회사는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러한 변화도 모색하는구나”라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이 많았어요.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조직의 문제와 함께 이러한 조직문화를 당연시 여기던 직원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문화팀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죠.

김철수 일단 재택근무나 자율복장제 시행은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덩달아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우리 팀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할까요. 조직문화팀 출범 이유를 스스

로 찾을 수 있었고 그간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어요.

조직문화팀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김철수 기존 관행처럼 내려왔던 틀에 박힌 문화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기본 방침 아래 직원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공통된 이상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민경애 저희 팀은 회사와 직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직원이 요구하는 조직문화와 리더들에

게 익숙한 조직문화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최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철수 자율복장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연하고 자유로운 복장 착용을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생산성을 높이는 취지로 업계 최초 시도한 제도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처럼 여겨지겠지만, 삼표가 레미콘업계에서는 최초로 시행했다는 걸 알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Good’, ‘Bad’로 나누어 복장에 대한 가이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기준을 만드는 입장에서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정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휴웨어 차림이나 노출이 심한 의상에만 제한을 두고 본인이 원하는 복장을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입도록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하려 제도를 시행하는 데 수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업무에 제약이 많을 듯합니다. 어려움은 없으신지, 또 회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철수 얼마 전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캠페인으로 회식문화 개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12운동을 통해 회식 최소 1주일 전 날짜 공지하기, 가볍게 1차로 마무리하기, 2시간 이내로 술자리를 끝내도록 하며 기존의 불편했던 삼표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부서별 이벤트도 실시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현재 집합모임 및 회식 활동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도 극복하면서 회식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경애 시국이 시국인지라 현재 조직문화팀

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벌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을 고려해 적극 도입한 재택근무제처럼 직원들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럼 내 조직문화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김철수 많은 아이디어와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리더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

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이 원하는 문화를 도입하려 해도 리더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제도와 문화의 정착은 쉽지 않습니다. 리더들은 변화된 제도를 팀원들이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팀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민경애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리더들의 의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그만큼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어려워지니까요. 건강한 토양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듯, 조직문화도 리더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그것이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문화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포부를 들고 싶습니다.

김철수 근본적으로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삼표그룹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한다면 결국 회사도 행복해지고 그것이 고객에게까지 전달되어 모두 아름다운 청사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즐거운 조직문화를 구축해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도 회사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민경애 제게 조직문화팀의 정체성은 조금 남다르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말은 일만 성실하게 잘 해내면 됐던 이전과 달리, 직원들의 기대감을 또 다른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개선 제도나 저희 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 때 하고 싶은 의지가 마구 샘솟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넘어 꼭 해내고 싶다고 할까요. ‘이런 제도가 생기면 어떤 것이 변할까’ ‘정말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까’ 하는 직원들의 기대감이 조직문화팀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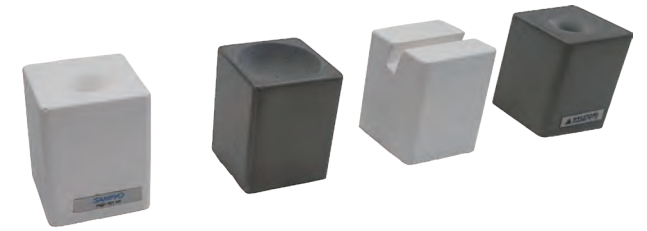


삼표 경영진과 삼표 홍보팀의 모습



삼표그룹, UHPC 기술 개발에 앞장서다

삼표그룹이 초고강도 콘크리트(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교량 등 토목 구조물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됐던 UHPC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비정형 구조물·건축용 PC(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마감재 등에 적극 활용하며 시장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



↑ 삼표그룹은 UHPC로 만든 연필꽂이와 명함꽂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도 제작해 선보이고 있다.

콘크리트의 진화

콘크리트는 오랫동안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 주요 건설 재료로 사회 기반 시설물의 근간을 이루었다. 점점 급속화하는 사회의 발전은 높은 효율성을 갖춘 구조물을 필요로 하고 이는 구조물의 대형화, 초고층화 및 장수명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초고강도 콘크리트다.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재료적 특성이 크게 향상돼 압축강도 150MPa 이상, 인장강도 15MPa 이상의 초고강도인 동시에 다량의 단섬유를 적용해 높은 연성과 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약 8배, 고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약 4배로 강도가 크게 향상된 데다 우수한 내구성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우수한 성능의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실제 설계와 시공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프랑스와 일본, 독일은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에 적용해 건설재료로서의 경제성·적용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급화는 더딘 편이었지만 관련 성과와 기술력 면에선 우리나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삼표그룹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활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은 국내 시장의 저변 확대는 물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특성	보통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초고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	21~28MPa	30~50MPa	150~230MPa
인장강도	2~3MPa*	4~8MPa*	10~20MPa**
휨강도	1~3MPa	5~15MPa	30~50MPa
탄성계수	21~35GPa	30~40GPa	43~50GPa
거동특성	Brittle	Quasi-Brittle	Ductility
균열형상	Partial	Partial + Multiple	Multiple

* 할렐(썸) 방식 인장강도, ** 직접 방식 인장강도



- ← UHPC를 활용한 비정형 건축구조물.
- ↳ 삼표 콘크리트 기술연구소가 지난 4월 설치한 가산테라타워의 포인트 액자형 UHPC 패널.

활용도 만점 UHPC, 시장 성공 가능성 높아

UHPC는 일반 콘크리트 강도의 최대 10배에 달하고 유동성은 크다. 이런 특성 덕분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적게 사용해도 높은 하중을 잘 견딜 수 있고 구조물 경량화가 가능하다. 철근을 쓰지 않고도 다양한 형태를 연출할 수 있는 데다 원하는 형상, 색상, 질감 등 표현도 가능해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크다. 해외에서는 창의적인 건물 디자인을 연출하기 위한 외장재, 야외용 벤치·테이블 등 생활에서도 UHPC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쓰임새가 제한적인 것이 단점으로 작용했다. 2002년 서울 선유도공원 보도교에 처음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높은 하중을 견뎌야 하는 초고층 구조물이나 교량 등에만 주로 이용돼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삼표그룹은 UHPC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삼표 콘크리트 기술연구소가 'UHPC를 재료로 한 비정형 건축물 건설기술'을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 개발하고 실물 크기 구조물을 시공해 기술력을 검증받기도 했다. 비정형 건축물은 곡선·유선형 등을 포함한 건축물로, 적층형 3D프린터로 UHPC를 뽑아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때문에 기존 성냥갑 형태의 네모난 건축물에 비해 고강도의 콘크리트와 높은 난도의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내구성과 독창적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하

클립 편집실 사진 홍보팀

는 건축물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UHPC의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끈질긴 연구 개발로 탄생한 UHPC 컬러 패널

삼표그룹은 UHPC를 접목해 인테리어 요소가 가미된 고성능 건축용 컬러 PC 마감재 구현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테라타워(현대엔지니어링 시공) 지식산업센터 1층 로비 벽면에 포인트 액자형 UHPC 컬러 패널을 설치했다.

검은색 선으로 구획을 나눠 파랑·빨강·노랑·흰색 등 다양한 색을 채운 형태로, 추상회화의 선구자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고성능 건축용 컬러 PC 마감재는 삼표 기술연구소·삼표피앤씨·현대엔지니어링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탄생했다. 압축강도 120Mpa, 슬럼프(반죽 상태의 질기) 800mm 이상 초고강도 UHPC가 적용돼 재료 분리 등 성능 결함이 없다. 백색 시멘트와 무기계 안료(물감을 사용해 원색은 물론, 파스텔 색감까지 표현하는 등 미적 요소도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콘크리트 표면 경화 지연 공법을 적용해 콘크리트 본연의 질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이러한 고성능 건축용 컬러 PC 마감재는 앞으로 각종 건축물 내·외장재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와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두께는 얇아 원하는 형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리석·알루미늄 패널 등 외장재를 대체하며 창의적인 디자인과 색도 연출할 수 있다.

이석홍 삼표 R&D혁신센터 부사장은 "포인트 액자형 UHPC 컬러 패널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각각의 얇은 조각들을 압축강도 120Mpa 이상 고강도로 구현해내야 하기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며 "각종 고강도 PC 내·외장재, 독특한 건물 인테리어 제품 등으로 UHPC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

“
내구성과 독창적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축물이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UHPC의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코스처 탄생의 주역, 분체 부문 수급전략팀 새로운 경계의 모험가들

전에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건물을 쌓거나 스펙트럼을 넓히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도전이란 명분 그 이상의 겪어보지 못한 큰 난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해 탄생한 업계 최초 합작 법인 (주)코스처, 그 탄생의 주역인 수급전략팀 이야기다. 앞으로 남이 가보지 않은 새롭고 성공적인 이야기를 써나갈 (주)코스처와 수급전략팀에 대해 궁금해진다.

최근 수급전략팀에서 코스처 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진기 차장(이하 여진기) 맞습니다. 지난 4월 한국남부발전과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코스처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수급전략팀은 삼표그룹 분체 부문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 조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 수재 슬래그(SLAG), 플라이애쉬(Fly-ash), 탈황석고 세가지 품목이 있는데, 주로 제철회사와 발전회사를 상대로 필요로 하는 물량을 확보해 공급하고 있죠.



코스처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재환 팀장(이하 이재환) 삼표그룹과 남부발전의 공동 이익을 위해 약 1년 전부터 법인 설립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꾸준한 설득과 조율 과정 등을 거쳐 드디어 지난 4월 1일자로 법인이 출범하게 되었죠. 앞으로 남부발전은 석탄재의 안정적인 처리를, 삼표그룹은 발전사로부터 건설기초소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처를 통한 원료 수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진기 삼척발전본부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당사 몰탈 부문의 원료로 사용 중이며, 하

동발전본부에서 발생하는 잉여석탄재는 분체부문의 플라이애쉬 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동발전본부 회처리장의 담수 처리된 매립되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 기업의 협력으로 탄생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재환 그룹 내부 사업부 간 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발전사라는 공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협업은 처음 진행되는 것이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스처도 내 회사'라고 생각하니 점차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사업 안정화 과정에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형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탄재 사업에서 발전사와 동등한 지위의 협력관계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삼표그룹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최초의 성과를 이루셨으니 자부심과 보람도 상당할 것 같아요.

여진기 공기업과 사기업이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해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이 다르기에 법인 설립 과정에서 많은 의견 조율이 필요했죠. 양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소통을 해나갔고 그런 시기를 지나 현재

삼표그룹 수급전략팀 수급과장 이재환



합작법인이라는 결과물을 낳았으니, 과거의 그 어떤 경험보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재환 코스처의 설립이 순환자원 재활용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퍼스트 팔로어가 아닌 '퍼스트 리더'로서 삼표그룹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니까요.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제고하는 환경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얼마 전에는 환경부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발전소의 재활용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처 탄생에 기여한 분들이니만큼 향후 목표도 궁금해집니다.

이재환 석탄재 사업분야는 현재 경쟁업체 간 변별력 없는 치열한 경쟁시장이었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으며 도전한 것이 코스처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도전의 이야기'를 쓴 것이라면, 앞으로는 업계 초격차를 이루는 본격적인 성공 이야기를 써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코스처가 국내 석탄재 재활용의 모범 사례로 국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면서, 삼표그룹 차원의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사업 또한 단력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진기 처음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할 때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한 걸음 내디뎠더니 훨씬 많은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삼표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보다 크게 성장할 코스처의 성공스토리를 상상해 봅니다. **5**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수급전략팀 유민철 과장, 최은혜 대리, 여진기 차장, 이재환 팀장

이런 멋쟁이런! 당신의 패션을 뽐내주세요

7월 1일부터 자율복장제를 전면 도입한 삼표그룹 직원들의
개성 만점 패션 스타일! 지금 만나볼까요?



김고은·정선민 대리
㈜삼표 삼표SM팀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점심시간에 풍납동 산책 다녀왔어요~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게 돼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아질 삼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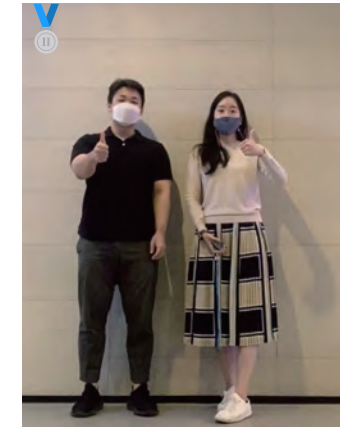
한정협 대리
㈜에스피환경 영업팀

삼표 하면 떠오르는 블루와 가을 느낌이 나는
베이지를 더해 '삼표의 가을'을
연출해보았습니다. 이전 외출할 때 필수가
되어버린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원 · 권경선 사원
㈜삼표산업 HR서비스팀,
김주형 사원 (주)삼표산업 인재개발팀

자율복장제 최고!
그동안 입지 못했던 청바지를 착용해 의상에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자율복장제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고 젊어진 것 같아 좋아요.



김경아 사원 (주)삼표산업 사업개발팀,
강성준 사원 (주)삼표산업 HR서비스팀

확실화된 셔츠와 바지를 벗어 던진 삼표인.
편안한 복장은 업무 효율과 창의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요즘, 자율복장제
시행만으로도 조금 더 쾌적해진 모습이지요?



김홍석 대리
㈜삼표산업 물탈품질관리팀

평소 옷과 신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복장제 시행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최진희 대리
㈜에스피환경 생산팀

출산 후 지친 마음으로 복귀했는데
자율복장제 시행 덕분에 매일 산뜻한
기분으로 출근합니다~ 근무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고 해서 기분도 좋구요!



엄준환 사원
㈜삼표산업 아산공장 영업과

출근 전 셀카로 찍어서 참여합니다~
공장 내에서도 자율복장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라 정말 좋습니다.
캐주얼 룩을 즐겨 입는데
회사에 입고 다닐 수 있어서 좋네요. S

문경진



시멘트 회사가 산업폐기물을 수집하는 이유는? 각종 산업 부산물을 건설기초소재로 활용하며 친환경 경영

삼표그룹은 각종 산업폐기물을 수집해 시멘트를 생산하거나 혼합제 등을 생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일찌감치 친환경 사업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삼표그룹의 경영철학을 살펴봤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친환경 사업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판단,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원 재활용과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삼표그룹의 실천 방안 중 하나다.”

삼표그룹의 다양한 친환경 사업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친환경 사업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판단,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삼표그룹의 환경자원사업 계열사 에스피네이처는 충남 보령·당진과 전남 순천 등 3곳에서 플라이애쉬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시멘트를 대체하는 혼합재를 만드는 곳이다.

당진과 천안 공장에서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Slag)를 가공해 건설기초소재인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한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한국남부발전과 특수목적법인 '코스처'를 설립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폐기를 재활용률도 높여나가고 있다.

삼표그룹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사업 전담 조직도 운영한다. 에스피네이처 환경자원 부문은 버려진 고철,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등을 활용해 철근의 주재료인 철스크랩을 가공한다. 친환경 소각장과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침전물인 폐수 슬러지 건조시설도 운영하며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를 시멘트 생산 연료로

삼표그룹의 다른 계열사 삼표시멘트는 생활 쓰레기를 시멘트 생산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삼척시와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을 건립한 후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다. 총 22억5000만 원의 시설 사업비 중 삼표시멘트가 20억 원, 삼척시가 2억5000만 원을 각각 투자했다. 삼표시멘트는 준공 후 시설을 삼척시에 기부채납했다.

이 시설은 하루 7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현재 연간 약 2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시설을 통해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727톤의 폐기물을 처리했고, 올 들어 지난 1~7월까지 월평균 82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상생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삼표시멘트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적극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기한 연장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까지 획득

삼표그룹은 지난해 11월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레미콘 제품의 4개 규격(△25-35-150 △25-30-150 △25-27-150 △25-24-150)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8월에는 몰탈 2개 제품이 한국공기청정협회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마크)' 최우수등급을 받기도 했다. 또 한국산업표준(KS)보다 강화한 자체 품질기준(SKS·SAMPYO KS)을 도입해 친환경 규격을 만족하는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다. 철저한 원자재 관리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에 업계 유일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 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도 운영하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원 재활용과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삼표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한 실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20년 8월 15일자 5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R&D 독심 투자 “어려울수록 미래 대비해야”

삼표그룹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올해 R&D 투자에 적극 나선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삼표그룹은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도 전년 수준의 투자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31억8800만 원이던 R&D 투자비용은 2016년 89억14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에는 102억2600만 원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94억1000만 원, 91억 62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83억 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 상황이 위낙 악화되면서 투자금액 자체는 소폭 줄었지만, 매출액 대비 비율로 따져보면 2015년 0.18%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0.51%까지 늘었고, 올해도 0.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도원 회장의 독심 있는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게을리해서는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기에 경기가 불확실하고 업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꾸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성장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표그룹은 지주사인 삼표를 비롯해 삼표산업, 에스피네이처, 삼표 레일웨이, 삼표피앤씨, 흥명산업, 엔알씨, 팬트랙, 삼표시멘트 등의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연구소도 2곳이나 운영하며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콘크리트 기술연구소는 1993년 7월 동종 업계 최초로 설립된 건설 소재 연구소다. 3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철도 기술연구소는 2001년 설립됐으며,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궤도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허는 국내 150건, 해외 10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북 청원군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9월 인수한 동양시멘트의 기존 연구소도 그룹의 기술연구소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앞으로도 삼표그룹만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데일리》 2020년 4월 20일자 5



↑ 32건의 특허를 보유한 삼표 콘크리트 기술연구소

삼표그룹의 핵심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R&D 기술연구소



철도 기술연구소

국내 철도기술 선도 주력

· 국내외 기술제휴, 품질시스템 강화, 국제규격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철도기술 선도



콘크리트 기술연구소

신학연 공동연구로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 건설사 및 혼화제사, 대학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시행,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
· 국내외 학회에 연구논문을 꾸준히 발표 ·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선진기술 습득과 기술동향 파악

친환경적이고 획기적인 신소재와 공법 개발

· 강도, 안전성, 경량화, 미적인 부분 등 기능적으로 뛰어난 제품 개발
·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이나 CO₂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

세련된 영상미와 섬세한 연출 화제 ‘삼표가 GREEN 세상’ 홍보 영상 공개



① — 삼표그룹 홍보 영상 ‘삼표가 그린 세상’ 화제

삼표그룹이 지난달 26일 ‘삼표가 그린 (GREEN) 세상’과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등 2편의 홍보 영상을 그룹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발표했다. ‘삼표가 GREEN 세상’이라는 제목의 4분 9초 분량의 홍보 영상은 그룹의 주요 산업을 초원의 청소부인 쇠똥구리의 역할에 비유해 제작했다. ‘초원의 청소부 쇠똥구리가 없었다면 지구는 온갖 동물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을 것’이라는 해설과 함께, 페타이어를 태우며 시멘트 원료를 생산하는 거대한 소성로



↑ 4분 9초 분량의 홍보 영상은 그룹의 주요 산업을 초원의 청소부인 쇠똥구리의 역할에 비유해 제작했다.

의 모습을 통해 삼표의 친환경 시멘트산업을 홍보한다. 세련된 영상미와 섬세한 연출로 완성된 영상은 삼표시멘트 공장과 삼표기술연구소의 역할과 특징을 명확하게 소개했고, 클로징에서는 삼표그룹 직원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나열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가치 창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삼표그룹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다”며 “해당 홍보 영상은 삼표그룹의 신규 임직원 교육 및 각 영업팀의 대외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② — 삼표그룹 레미콘 3개 규격 ‘저탄소제품 인증’

삼표그룹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레미콘 제품 가운데 3개 규격(‘25-24-150’, ‘25-27-150’, ‘25-30-150’)에 대해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레미콘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홍 삼표그룹 R&D혁신센터 부사장은 “녹색건축인증이 증가하면서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레미콘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인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③ — 삼표그룹 경기 연천군에 장학금 3000만 원 전달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10월 8일 경기 연천군청에서 지역 장학생 39명에게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성남 연천군 부군수와 최재범 통일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한 연천군 관계자,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성남 연천군 부군수는 “평화·생태 도시인 연천군과 삼표그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생태숲 조성을 비롯한 친환경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장학사업이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④ — 삼표그룹
고객 초청 '특수 콘크리트 시연회' 열어

삼표그룹이 9월 21일 경기 광주시 삼표 기술 연구소에서 임직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수 콘크리트 성능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연회는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Bluecon Winter)'와 조강 제품인 '블루콘 스피드(Bluecon Speed)'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시연회에 참가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8·5제, 토요일 휴무 등에 따른 공기(工期) 압박과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블루콘 윈터·스피드는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이라며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더는 데 효과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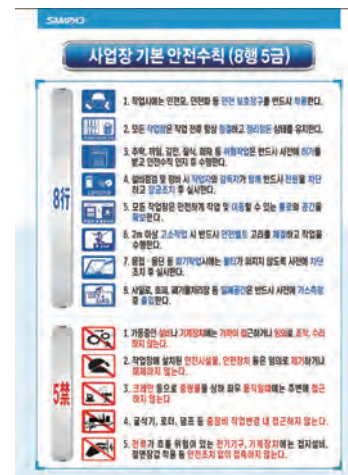
⑤ — 삼표그룹
보령 주교면 지역 장학생에 장학금과 증서 전달

삼표그룹이 8월 6일 그룹장학재단인 '정인욱 학술장학재단'을 통해 충남 보령시 주교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장학생 10여 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삼표그룹은 2010년부터 보령 주교면 주민번영회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올해도 지역 우수인재에게 약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⑥ — 삼표그룹
10월 한 달간 '안전의 달' 운영

삼표그룹은 최근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한 가운데, 사내 안전관리 의식강화 및 현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안전의 달'을 운영한다. 특히 1주 차인 10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사업장 야외 공간에서 안전의 달 선포식을 열었다. 전 직원이 선포식 결의문을 통해 안전 강화 의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별 안전 활동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시상하며 사기를 북돋웠다. 안전 강조의 달인 만큼 한 달간 위험성평가 제출을 비롯해 평가 회의 및 전파교육, 안전조치사항의 점검과 확인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3주 차인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사업장 내 모든 직원이 주변 구역을 정리 정돈하는 5S 활동을 이어간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안전의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며 각 현장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을 지키는 의미 있는 활동이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⑦ — 삼표산업
레미콘 운송업자와 상생 앞장

삼표산업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회사와 계약을 맺은 모든 레미콘 운반기사에게 선금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명절을 앞둔 운송사업자들의 생활자금 부담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어려움을 조금씩 나누자는 취지에서 선금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협력업체와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⑧ — 에스피네이처
포항하역팀 황태운 팀장, 근로자의날 대통령 표창 수상

에스피네이처 포항하역팀 황태운 팀장이 '2020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팀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포항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진행된 수여식에서 황태운 팀장은 "앞으로도 팀은 물론 회사 내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위해 언제나 모범이 되는 근로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9

입사를 환영합니다!



삼표그룹, 새로운 기초가 되다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기초이자 친환경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건설소재 1등 기업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	비고
(주)삼표	인사기획팀	배국환	부회장	2020년 4월 1일	
	D/T팀 남동물류영업소	이승은	상무	2020년 4월 1일	
	BCT팀 당진FA출하실	이준희	사원	2020년 5월 6일	
	BCT팀 당진SLAG출하실	김병선	사원	2020년 5월 6일	
	BCT팀 천안SLAG출하실	허성범	사원	2020년 5월 6일	
	BCT팀 천안SLAG출하실	한만근	사원	2020년 5월 6일	
	D/T팀 동부산물류영업소(동부산출하)	최건희	사원	2020년 6월 1일	
(주)삼표산업	홍보팀	김동은	과장	2020년 7월 1일	
	인사기획팀	정광희	부장	2020년 7월 13일	
	남광주공장 영업과	정인태	사원	2020년 4월 1일	
	성수공장 영업과	김동현	사원	2020년 4월 1일	
	여주공장 영업과	김교성	대리	2020년 4월 6일	
	R&D혁신센터	이석홍	부시장	2020년 4월 20일	
	남광주공장 품질과	조형일	사원	2020년 4월 27일	
	서부산공장 품질과	공호현	사원	2020년 4월 27일	
	아산공장 품질과	문중호	사원	2020년 4월 27일	
	아산공장 영업과	엄준환	사원	2020년 5월 11일	
	중기정비팀(양주)	안성호	사원	2020년 5월 18일	
	재무기획팀	이명재	대리	2020년 7월 1일	
	공장자동화팀	장민엽	부장	2020년 7월 6일	
	환경안전팀	박창운	차장	2020년 7월 6일	
설비엔지니어링팀	조규영	과장	2020년 7월 20일		
레이콘설비팀	강성욱	대리	2020년 7월 20일		
설비엔지니어링팀	박진석	차장	2020년 7월 27일		
공장자동화팀	노대홍	차장	2020년 7월 27일		
(주)에스피네이처	단양정비팀	강치열	대리	2020년 4월 6일	
	광주공장 품질과	김현수	사원	2020년 4월 27일	
	동서울공장 품질과	정용일	사원	2020년 5월 6일	
	포항전기로SLAG팀	왕세명	사원	2020년 5월 18일	
	폐기전RC팀	홍승수	과장	2020년 6월 1일	
	AF수급2팀	배홍한	대리	2020년 6월 1일	
(주)에스피에스엔에이	대구사업소	김민지	사원	2020년 7월 27일	
	영업전략팀	박지혁	사원	2020년 4월 16일	
삼표레이웨이(주)	오송공장생산기획팀	민경록	사원	2020년 4월 8일	
	오송공장품질관리팀	김완일	사원	2020년 6월 1일	
	설계관리팀	한정희	부장	2020년 4월 1일	
	공사수행팀	권세오	부장	2020년 4월 20일	
	상주공장생산관리팀	황인성	대리	2020년 4월 20일	
	청주공장DW생산팀	강진광	사원	2020년 4월 20일	
	포항공장생산관리팀	홍용성	사원	2020년 4월 23일	
	구조팀	곽민경	대리	2020년 5월 6일	
	공사수행팀	박건희	사원	2020년 5월 18일	
	공사수행팀	자필구	차장	2020년 6월 1일	
삼표피앤씨(주)	공사수행팀	강영배	부장	2020년 6월 1일	
	BIM팀	이동규	부장	2020년 6월 1일	
	공사수행팀	허무정	차장	2020년 6월 15일	
	PC영업2팀	정승환	대리	2020년 6월 15일	
	콘크리트안전팀	김성원	차장	2020년 7월 6일	
	경영지원팀	황중호	사원(4급)	2020년 5월 11일	
	대외협력팀	남필도	선임사원	2020년 6월 1일	
(주)삼표시멘트	공정개선팀	유재복	촉탁(부장)	2020년 6월 8일	
	제조(광양S)	이석권	사원(생산6급)	2020년 7월 1일	

독자퀴즈

Q1 최근 총무팀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업의 문화 전반을 개선하는 역할을 도맡으며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도입부터 자율복장제, 건강한 화식문화 만들기 운동까지 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해당 팀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p.26 참조)

() () () () ()



Q2 삼표그룹은 국내산 석탄재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남부발전과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전문법인으로는 국내 최초인데요. 지난 3월 국내 폐기물 저감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업무유공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이곳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p.34 참조)

() () ()



두 문제의 정답을 이메일에 적어 11월 30일까지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3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보내주실 때에는 이번 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또는 앞으로 <삼표가 GREEN 세상>에서 다루길 원하는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응모 홍보팀 김혜원 차장 (kn113@sampyo.co.kr)



사업부별 소식을 보내주세요

그룹 내 뉴스를 보다 빠르게 전하기 위해 사보 <삼표가 GREEN 세상>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별 단신 뉴스를 모집합니다. 삼표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생생한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보내주시는 뉴스가 사보에 게재되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보 홍보팀 김혜원 차장
 (kn113@sampyo.co.kr)

지난 호 퀴즈 정답

- 01 삼표와 그린 생명 더하기
- 02 콤마리운지

당첨을 축하합니다

- (주)삼표 사회공헌팀 박소윤 대리
- (주)삼표 삼표피앤씨SM팀 송건 대리
- (주)삼표 D/T팀 북부물류영업소 이슬찬 사원
- (주)에스피환경 생산팀 권오태 대리
- (주)에스피네이처 광주공장영업과 민성호 대리

온라인에서 삼표를 만나는 방법

-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sampyopr>
- 페이스북 주소**
<https://www.facebook.com/sampyogroup>
- 인스타그램 주소**
<https://www.instagram.com/sampyopr>